

II. 글로벌 보험시장의 합병 분석

1. 글로벌 금융그룹의 합병 흐름

□ 금융산업 M&A의 경우 국내 M&A에서 국경간(Cross-border) M&A로, 동종업 종간 M&A(Consolidation)에서 이종업종간 M&A로 다각화(Diversification)²⁾

-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인력과 설비 효율화 제고에 도움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는 국내 금융산업의 M&A는 1단계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내국사간(Domestic M&A) 추진
 - 금융기관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점포임대료와 인건비로 합병당사가간의 중복되는 유사점포 축소, 인원감축 등으로 막대한 절감효과 발생
- 2단계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동종업체간 합병(Consolidation)이 진행
 - 선도기업간의 경쟁이 가시적인 수익과 효율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외형성장을 선호하게 되어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시키면서 산업의 구조재편을 촉진함
- 3단계는 겸업화 진전에 따라 범위의 경제를 위한 이종업체간 합병(Diversification)이 이루어짐
 - 고객들이 다양한 보험·은행·증권상품을 한 장소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금융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겸업주의를 지향하는 대형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범위의 경제를 위한 합병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 4단계는 개방화, 글로벌화에 따라 이국적 금융기관간의 국경간 합병(Cross-border M&A)을 통해 글로벌 과점화 추진
 -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성 도달, 선진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이용한 신흥

2) 장원 외(2006)

시장에서의 높은 기대 수익 기대,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 기관별 장점을 가진 부분의 통합으로 업무의 시너지 제고 효과 가능

- 빠른 속도로 글로벌 과점화를 추구하여 규모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흡수가 유효한 전략

○ 국내 금융산업은 현재 1, 2단계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3, 4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

□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경영성과의 효율화 경험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압력, 규제완화, 거래금액의 대형화와 글로벌화, 적대적 M&A가 두드러짐

○ 대미 무역마찰 심화, EC 통합 등에 대응해 현지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경간 M&A가 세계적으로 확산

○ 산업 전체적으로는 70년대 후반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구성비가 높아지면서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가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 1/4(1980년 기준)이 적대적 M&A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등으로 규모 확장 및 시장지위 강화를 위한 거대 기업간 초대형 합병과 국경간 M&A 비중이 증가하여 글로벌 성장전략으로 M&A 활용

○ EU 등 단일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면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주활동국가가 상이한 국경간 M&A 확대

- 1990년대 EU의 발족은 유럽의 국경간 M&A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02년 유로/달러 환율이 역전되면서 유럽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활성화되기 시작

- 국경간 M&A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속속 증가하고 글로벌 과점화가 진행

○ 글로벌화 진전,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으로 경쟁구조 개편 및 경쟁 심화가 M&A 증가 배경

- EU가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서유럽 및 구 공산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M&A대상기업 집단이 확대
- EU 통합으로 단일시장이 형성되자 산업 전체적으로는 EU 기업간 M&A가 3배 이상 증가³⁾
- EU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외기업들은 통합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M&A 활용

<표 6> 국가별 FDI(유입) 대비 국제 M&A 비중

구분	1987-1991	1992-1994	1995-1997	1998-2001
세계	66.29	44.75	60.18	76.23
선진국	77.49	64.93	85.39	88.96
기타	21.94	15.49	25.79	35.74

자료 : Barba-Navaretti, G., Venables. A.(2004), 강원 외(2006), p.1.에서 재인용

□ 2000년대 이후 M&A가 신흥시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4년에는 전 세계 산업전체 M&A건수 가운데 약 1/3이 아시아에서 발생

- 2000년대 초반 선진기업의 경영기조가 내실경영이었다면 2003년 이후 부터는 확장경영으로 전환되고 가고 있는 중
 - 선진기업들은 현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하기 보다는 단기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빠른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M&A를 적극 활용⁴⁾
- 그동안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M&A에 소극적이었으나, 글로벌금융그룹의 최근 M&A추진 배경을 파악하고 해외진출에 관심이 고조됨

3) EU Commission(1993)

4) 각 산업의 1위 기업은 주요 경쟁자(5위 이내 동종기업)보다 M&A를 더 많이 수행. 강원 등 (2006) 참조.

2. 글로벌 생명보험그룹⁵⁾

□ 글로벌 생명보험그룹들은 과거 10년 동안 강한 합병(consolidation) 트렌드를 보여옴

○ 합병의 주요 모델은 M&A(Merge and acquisition)이며, 이는 주로 주가상승, 이자율 하락, 산업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의 증대 요인으로 인해 1990년 대 후반 가파르게 상승

○ 글로벌보험그룹(회사)이란 보험회사업의 활동 거점이 단일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1개 이상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거두는 회사를 의미

□ 2004년 전세계 생명보험그룹을 분석하면 40대 생보사의 보험료 규모는 전체 생명보험료의 55.9%로 1998년 48.9%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며, 이들 40개 보험회사의 절반이 미국, 영국, 일본에 소재

○ 상위 40대 그룹중에서 상당수의 생명보험그룹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아시아 회사들과 일부 미국의 회사들은 단일 시장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므로 여전히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영업

○ 전세계 생명보험그룹들의 시장집중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상위 40개사중 세계시장 점유율 1%를 초과하는 생명보험그룹은 총 23개사로 이중 글로벌보험회사가 12개사, 국내사(Domestic)가 11개사이며 12개 글로벌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1998년 19.8%에서 2004년 28.2%로 급성장

○ 반면 국내사의 경우 1998년 29.1%에서 2004년 27.7%로 시장점유율 하락

○ 글로벌 생명보험그룹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 3개사, 영국 2개사, 그리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가 각각 1개사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북미 4개, 유럽 8개사이며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은 글로벌

5) Swiss Re(2006), *Sigma No.1*. 참조

별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 글로벌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성장은 내실성장(organic)보다는 외형성장(M&A)에 기인

○ 세계시장 점유율 1%를 초과하는 대해보험회사 23개사의 1998년과 2004년 보험료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글로벌보험회사중 10개사가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단일시장 내 활동하는 국내보험회사는 11개사 중 5개사만 증가하여 글로벌 보험회사의 성장이 국내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

<표 7> 전세계 주요 생명보험그룹 현황 및 시장점유율

순위	회사명	국적	1998	2004	
				MS	보험료(백만달러)
1	AIG	미국	1.8%	3.6%	66,837
2	Metropolitan Life	미국	2.4%	3.2%	58,732
3	AXA	프랑스	3.3%	3.2%	58,422
4	Allianz	독일	1.8%	3.0%	56,178
5	ING	네덜란드	1.5%	2.5%	45,978
6	Generali	이탈리아	1.7%	2.5%	45,936
7	Nippon Life	일본	3.8%	2.5%	45,515
8	Aegon	베네룩스	1.7%	2.3%	42,080
9	Aviva	영국	0.9%	2.0%	37,612
10	Great Western Life	캐나다	1.5%	1.8%	34,090
11	Menulife	캐나다	0.8%	1.7%	31,807
12	Dai-ichi	일본	2.6%	1.6%	30,272
13	Prudential(UK)	영국	1.4%	1.6%	29,959
14	Meiji	일본	1.7%	1.6%	29,512
15	Prudential(US)	미국	1.3%	1.5%	27,751
16	Hartfort	미국	1.2%	1.5%	26,848
17	Sumitomo	일본	2.2%	1.3%	23,831
18	CNP	프랑스	1.3%	1.3%	23,828
19	New York Life	미국	0.9%	1.2%	22,798
20	Credit Agricole	프랑스	0.5%	1.0%	19,390
21	Zurich	스위스	1.2%	1.0%	19,272
22	Principal Life	미국	1.1%	1.0%	18,840
23	Standard Life	영국	0.6%	1.0%	18,719
Total Top 40			48.9%	55.9%	1,032,905
of which Globals			19.8%	28.2%	520,565
of which non-Global			29.1%	27.7%	512,339
전세계생명보험료					1,849,086

주 : 색칠한 부분은 글로벌생명보험그룹임
 자료 : Swiss Re(2006)

- 12개의 글로벌 보험회사는 총 1,040억불의 보험료를 가진 130개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인수로 인해 증가된 보험료가 2004년 전세계 생명보험료의 5.6%로 세계 보험료증가율(8.4%)의 2/3에 해당

- 글로벌보험회사의 성장에는 M&A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 M&A를 통해 가장 괄목하게 성장한 보험회사그룹은 AVIVA 그룹(영국)과 AIG(미국)임

- 성공적인 합병요건은 통합절차 및 시의성과 적합성이며, 주로 고도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서 많은 경험이 M&A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표 8> 글로벌 생명보험그룹들의 M&A 실적 (1998~2004)

순위	회사명	국가	M&A건수	인수보험료 (USD m)	거래금액 (USD m)
1	Aviva	영국	21	10,912	33,475
2	Manulife	캐나다	16	8,003	10,451
3	Metlife	미국	14	11,312	2,225
4	AIG	미국	12	24,470	43,440
5	Aegon	베네룩스	11	11,178	11,336
6	Allianz	독일	11	3,250	1,204
7	Prudential(UK)	영국	10	1,456	332
8	Generali	이탈리아	9	11,057	17,374
9	Prudential(US)	미국	9	4,914	8,148
10	Zurich FS	스위스	8	3,102	1,345
11	ING	네덜란드	6	13,099	14,241
12	AXA	프랑스	3	1,160	3,529
합계			130	103,913	147,100

주 : Metlife의 Travellers인수는 포함하지 않음(보험료(2003기준) 10,300(백만달러), 거래금액 11,500 (백만달러))

자료 : Swiss Re(2006)

□ 유럽의 글로벌 생명보험그룹들은 미국의 확정 및 변액연금사업에 높은 관심이 있어 미국 연금시장에 진출

- 변액연금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경우 가장 인기 있는 반면 확정연금은 주식시장 침체에 인기가 있는 상품
- 연금사업은 잠재적으로 보험회사의 국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산관

리수수료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여 글로벌보험회사들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각

- 이러한 요인들은 유럽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미국의 연금시장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여 미국의 상위 10대 연금사업자 중에 4개사는 유럽의 글로벌생명보험그룹임

<표 9> 미국의 주요 연금사업자 현황(2004년)

회사명	순위	보험료 (USD bn)	시장점유율	국가
AIG	1	31.5	9.8%	미국
Hartford	2	20.9	6.5%	미국
Metlife	3	18.5	5.8%	미국
ING	4	17.5	5.4%	네덜란드
John Hancock	5	16.1	5.0%	미국
Allianz	6	12.5	3.9%	독일
AXA	7	12.2	3.8%	프랑스
Prudential(US)	8	12.1	3.8%	미국
Lincoln National	9	9.9	3.1%	미국
Aegon	10	9.5	3.0%	베네룩스
		160.8	50.0%	

주 : 색칠한 부분은 미국내 유럽계 글로벌보험그룹
 자료 : Swiss Re(2006)

3. 보험산업의 합병 활동 분석

가. 은행과 보험회사간 합병

□ 유럽의 경우 북미와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은행과 보험간 결합(이업종간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가장 보편적 형태는 M&A를 통한 방카슈랑스 그룹의 형성임

- 은행에 보험활동을 발전시킨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보험을 중심으로 은행업무를 발전시킨 형태(assurfinance), 둘 다 결합한 한 경우(Allfinance)등 다양한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의 형태가 유럽시장내 형성

□ 금융그룹 형성시 이업종간 결합(cross-sectoral) 전략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채널제휴, 합작투자, 자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를 포함한 M&A 등임

- 1990년에서 2003년중 은행과 보험부문간 총 M&A 규모는 9,500억 유로임.
- 이중 약 60%는 같은 부문, 동일 국가간 거래이며, 기존의 지역적 및 부문간 경계를 넘어 설립되는 금융그룹으로 지속적인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은행과 보험간의 M&A에서는 보험이 은행을 인수한 규모(765억 유로)가 은행이 보험을 인수한 규모(501억 유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가 은행에 비해 이종업체간 M&A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Allianz에 의해 Dresdner은행이 220억 유로로 거래되어 그러한 영향이 큰 것으로 기록됨

<표 10> EU의 은행 및 보험회사간 M&A 금액

(단위 : 십억 유로)

구분	국내		EU 내부		EU 외부		전체	
	은행	보험회사	은행	보험회사	은행	보험회사	은행	보험회사
은행	446.3	40.7	75.1	4.3	60	5.1	581.4	50.1
보험회사	52.3	115.3	20.2	36.9	3.9	73.3	76.5	225.6

자료 : Frank Dierick(2004) p.6

- 은행의 보험회사 인수와 보험회사의 은행인수 모두 1997~2001년 중에 많이 발생하였고,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내 회사간에 이루어졌으나 보험회사가 인수자인 경우는 상당부분이 EU 내부 국가와 거래가 이루어짐
- 90년 이후 2003년까지 EU내 국경간 M&A 거래 규모는 은행(43억 유로)보다는 보험권(202억 유로)에서 더 확연하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표 11> EU 은행 및 보험회사간 M&A 연도별 실적 추이

(단위 : 십억 유로)

구분	인수자 :은행, 피인수자 :보험			인수자 : 보험, 피인수자 : 은행		
	국내	EU 내부	EU 외부	국내	EU 내부	EU 외부
90	0	-	-	1.4	1.5	0.2
91	0.4	0.4	-	5.6	0.0	0.0
92	1.6	0.0	-	0.5	0.3	-
93	0.6	-	0.0	0.5	0.1	0.0
94	0.4	0.2	0.1	1.0	-	0.0
95	1.2	-	-	0.1	0.8	0.1
96	3.1	-	-	0.1	-	0.2
97	2.8	-	0.1	1.1	6.4	0.0
98	0.1	0.6	0.3	12.9	2.6	1.3
99	6.1	0.0	0.7	1.8	6.2	0.5
00	16	3.1	3.4	3.7	1.9	1.1
01	5.7	-	0.0	22.7	0.1	0.3
02	0.9	-	0.6	0.2	0.3	0.2
03	1.6	-	-	0.7	-	-
1990-2003	40.7	4.3	5.1	52.3	20.2	3.9

자료 : Frank Dierick(2004) p.8

- 1999~2003년간 M&A 거래 규모별 회사 실적을 보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가 총 24건으로 이중 은행의 보험회사 인수 건수와 보험회사의 은행인수 건수가 동일하게 12건임
 - 거래 규모면에서는 1위에서 5위까지 거래중 4개 거래의 인수자가 보험회사임(Allianz, Fortis, Nationale Nederlanden, ING Group)
 - 보험회사가 은행을 인수한 경우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주로 자국내 보험 시장이 협소하여 국가적으로 금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임

<표 12> EU 보험 및 은행간 주요 M&A 현황(1999~2003)

(단위 :10억 유로)

순위	인수자		인수대상 회사		연도	거래 금액
1	Allianz(I)	DE	Dresdner Bank(B)	DE	2001	22.3
2	Lloyds TSB Group(B)	UK	Scottish Widows Fund & Life(I)	UK	2000	12
3	Fortis(I)	BE	Generale de Banque(B)	BE	1998	10.5
4	Nationale Nederlanden(I)	NL	NMB Posbank Groep(B)	NL	1991	5.6
5	ING Group(I)	NL	BBL(B)	BE	1997	4.1
6	Abbey National(B)	UK	Scottish Provident Institution(I)	UK	2001	2.9
7	Dexia Belgium(B)	BE	Financial Security Assurance(I)	US	2000	2.7
8	Irish Permanent(B)	IE	Irish Life(I)	IE	1999	2.7
9	ING Group(I)	NL	BHF Bank(B)	DE	1999	2.3
10	Lloyds TSB Group(B)	UK	Lloyds Abbey Life(I)	UK	1996	2.1
11	Wuestenrot Beteiligung(B)	DE	Wuerttembergische Versicherung(I)	DE	1999	2.1
12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B)	SE	Trygg-Hansa(I)	SE	1997	2.0
13	Fortis NL(I)	NL	Banque Generale du Luxembourg(B)	LU	2000	1.8
14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B)	ES	Cia de Seguros Mundial(I)	PT	2000	1.7
15	Halifax Group(B)	UK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I)	UK	2001	1.7
16	Vakuutusosakeyhtio Sampo(I)	FI	Leonia Bank(B)	FI	2000	1.7
17	Fortis International(I)	NL	ASLK-CGER(B)	BE	1999	1.5
18	Royal Bank of Scotland Group(B)	UK	Churchill Insurance Co Ltd(I)	UK	2003	1.5
19	Caixa Geral de Depositos(B)	PT	Cia de Seguros Mundial(I)	PT	2000	1.4
20	Fortis(I)	BE	Mees Pierson(B)	NL	1997	1.3
21	ING Group(I)	NL	BHF Bank(B)	DE	1998	1.3
22	ING Group(I)	NL	Credit Commercial de France(B)	FR	1999	1.2
23	Unidanmark(B)	DK	Tryg-Baltica Forsikring(I)	DK	1999	1.2
24	Assicurazioni Generali(I)	IT	Banca della Svizzera Italiana(B)	CH	1998	1.1

주 : 1) 10억유로 이상 거래만 나타낸 것임

2) “B”는 은행 “I”는 보험회사를 말함. 색칠한 부분이 보험회사가 은행을 인수한 사례임

자료 : Frank Dierick(2004) p.8

나. 합병의 기간별 비교

- 주요 선진국가⁶⁾의 1990~2003년중 금융부문의 M&A 활동을 보면 총 9,949건(2조 3,624억달러)중 인수대상이 은행인 경우가 전체의 59%인 5,867건(금액 1조 6,051억달러 68%), 보험회사인 경우가 14%인 1,413건(금액기준 4,209억달러, 18%)로 은행이 보험회사에 비해 M&A 활동의 주요대상임
 - 기간별로 분석하면 1990~1995(제1기간)년 중에는 매년 평균 거래건수 633건(거래금액 641억 달러)이었으나 1996~2000년(제2기간) 중에는 평균 866건(3,169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침체기(제3기간)로 접어든 2001~2003년 중에는 평균 607건(1,309억 달러)을 기록
 - 은행과 보험회사를 비교하면 제1기간 중에는 전체 M&A중 은행과 보험회사가 각각 금액기준으로 76%, 13%를 차지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할수록 보험회사의 비중이 확대되어 제3기간 중에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비율이 각각 58%, 23%를 기록
 - 이는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M&A 인수대상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 금융부문의 M&A 시장이 급격한 침체기를 경험한 제3기간 중 보험 부문의 M&A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
 - 즉 은행이 인수대상인 경우 76%(제1기간)에서 58%(제3기간)로 줄어든 반면, 보험이 인수대상인 경우는 13%에서 23%로 증가
 - 이는 금융산업에서 은행보다는 보험회사가 M&A의 주요 대상이 되어 거래되었음을 의미

6)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총 13개국(표 16 참조)

<표 13> 은행과 보험회사의 M&A 기간별 비교

구분	전체(1)	은행(2)		보험회사(3)	
	(a)	(b)	(b/a)	(c)	(c/a)
1990~1995 매년 평균					
거래건수	633	402	63	89	14
거래금액(백만 달러)	64,142	48,544	76	8,557	13
1995~2000 매년 평균					
거래건수	866	496	57	130	15
거래금액	316,947	217,354	69	55,941	18
2001~2003 매년 평균					
거래건수	607	326	54	76	13
거래금액	130,969	75,690	58	29,959	23
1990~2003 전체					
거래건수	9,949	5,867	59	1,413	14
거래금액	2,362,493	1,605,102	68	420,922	18

주 : 1) 인수자와 인수대상이 모두 금융기관인 경우
 2) 인수자는 금융기관, 인수대상이 은행인 경우
 3) 인수자는 금융기관, 인수대상이 보험회사인 경우

자료 : Thomson Financial, <http://www.ania.it> 재인용

- 동일 국가내 거래, 즉 인수회사와 인수대상회사가 동일 국가인 M&A (Within-Border M&A 또는 Domestic M&A) 비중을 보면 전 기간동안 85% 수준으로,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가 낮은 국내 M&A 비율을 보임
 - 산업별 비교하면 인수대상이 은행인 경우 금액기준으로 최고 92.9%를 차지하였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70%정도로 은행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보임
 - 특히 M&A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던 제2기간 중 금액기준 은행의 경우 92.9%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67.1%만이 국내에서 발생
 - 따라서 M&A 시장에서는 은행에 비해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 및 글로벌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

<표 14> 은행과 보험회사 국내 M&A 비교

구분	1990~1995	1996~2000	2001~2003	1990~2003
금융기관 전체				
거래건수	88.4	85.9	84.7	86.6
거래금액	89.8	84.0	83.2	84.8
은행				
거래건수	92.9	91.4	88.2	91.5
거래금액	93.4	92.9	82.9	91.6
보험회사				
거래건수	75.4	72.1	81.6	74.9
거래금액	70.3	67.1	79.7	70.2

자료 : Thomson Financial, <http://www.ania.it> 재인용

- 동종 산업내 거래, 즉 인수회사와 인수대상회사가 동종 산업인 M&A (Within-Industry M&A) 점유비중은 은행과 보험회사 모두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국경간 M&A중 1990~2003중에 은행은 73.9%, 보험회사는 91.1%가 동종 산업간 M&A로 나타남
- 금융산업 전체적으로는 국경간 M&A가 1996~2000 중에 주춤하다가, 2001~2003 중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
- 1990~2003중에 보험회사의 국경간 M&A 비중은 거래 금액의 30%임에 반해 은행의 경우 8%에 불과하여 보험 부문이 은행에 비해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영
- 특히 보험회사 M&A의 경우 기간별로 국경간 M&A중 동종 산업간의 거래 비중이 85.6%(90~95), 91.3%(96~2000), 94.8%(2001~2003)로 동종 산업간 국경간 M&A가 은행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표 15> 은행과 보험회사 동종 산업간(Within-Industry) M&A 비교

구분		1990~1995	1996~2000	2001~2003	1990~2003
금융기관 전체					
동종산업 M&A	건수	82.0	79.1	75.8	79.6
	금액	82.6	78.9	79.8	79.7
국경간 M&A	건수	72.7	71.0	68.1	71.0
	금액	77.1	70.7	84.5	74.0
은행					
동종산업 M&A	건수	85.9	83.6	74.8	83.1
	금액	86.9	80.5	80.3	81.6
국경간 M&A	건수	69.2	67.5	62.6	66.9
	금액	76.4	66.8	86.7	73.9
보험회사					
동종산업 M&A	건수	80.7	77.0	71.5	77.5
	금액	68.9	85.8	79.4	82.4
국경간 M&A	건수	87.8	85.2	78.6	85.4
	금액	85.6	91.3	94.8	91.1

자료 : Thomson Financial, <http://www.ania.it> 재인용

- M&A 거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은행산업의 경우 거래금액은 미국 (57.6%)과 일본(10.4%)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경우 미국(49.9%), 영국(16.1%), 네덜란드(6.0%), 프랑스(5.8%), 이탈리아(4.7%), 독일 (4.7%)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 보험 부문 M&A 거래 규모와 자국 보험료를 비교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68.4%, 스위스 36.4%, 영국 30.9%, 이탈리아 29.2%, 미국 23.2% 등으로 나타나 보험 부문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보험 부문의 국경간 M&A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로는 벨기에(97.2%), 영국(52.9%), 스페인(51.4%) 등임
- 금융 부문별 M&A 분석 결과 보험이 은행에 비해 보다 더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 이유는 해외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인가당국의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고, 보험사업이 은행에 비해 지리적으로 다각화되어 있고, 규제 측면에서 국가적 차이가 은행보다 유사하기 때문임

<표 16> 보험부문 국가별 M&A 현황 (1990~2003)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건수	M&A 금액		전세계 M&A비중		국경간 M&A		동종산업 M&A	
		금액	보험료	보험회사	은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606	210,167	23.2	49.9	57.6	11.9	26.4	79.5	87.3
영국	217	67,586	30.9	16.1	7.5	30.9	52.9	73.7	87.8
네덜란드	58	25,440	68.4	6.0	1.1	31.0	18.4	82.8	78.7
프랑스	64	24,551	21.6	5.8	5.1	46.9	14.9	71.9	69.2
이탈리아	82	19,912	29.2	4.7	6.7	28.0	11.2	64.6	80.8
독일	91	19,870	16.1	4.7	2.8	22.0	35.7	75.8	74.3
일본	47	17,807	4.0	4.2	10.4	27.7	37.9	68.1	91.4
스위스	21	11,451	36.4	2.7	1.7	61.9	15.6	81.0	10.2
캐나다	62	9,700	21.4	2.3	1.3	30.6	14.6	77.4	86.7
호주	48	4,778	14.6	1.1	1.0	37.5	29.6	81.3	79.7
벨기에	30	3,739	18.2	0.9	1.8	73.3	97.2	90.0	97.5
스페인	73	3,116	8.5	0.7	2.4	46.6	51.4	87.7	79.5
스웨덴	14	2,806	17.3	0.7	0.8	42.9	0.1	71.4	15.9
계	1413	420,923	20.1	100.0	100.0	25.1	29.8	77.5	82.4

자료 : Thomson Financial, <http://www.ania.it> 재인용